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6/1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2:9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롬 5:1, 10, 17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6:4, 22-23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롬 7:10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에는 반복하여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이 단어들은 ‘생명’과 ‘죽음’이다. 창세기 2 장에서 생명은 생명나무로 대표되고, 죽음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대표 된다(9 절).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산물은 사실상 지식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들을 생명나무와 죽음나무라고 부를 수 있다. ... 이 죽음나무에는 세 가지, 곧 지식과 선과 악이 관계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선과 지식은 귀히 여기지만 악은 싫어한다. 우리는 선과 악이 서로 다른 두 범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과 악에 대한 관념은 이와 다르다. 성경은 선과 악을 모두 동일한 범주 안에 넣는다. ... 창세기 2 장에 따르면, 지식과 선은 악과 함께 두어진다. 그것들은 한 가족에 속하면서 함께 일하여 죽음을 낳는 세 ‘자매들’이다. 물론 죽음은 생명에 반대된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8, 23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항목들 대부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전되는 영적 진리들의

씨들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창세기 2 장에는 생명의 씨와 죽음의 씨가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씨들의 완결을 본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불 못에 던져진다(계 20:14).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이 넘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과 그 안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를 보기 때문이다(계 22:1-2). 중심에서 둘레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성이다. 성경의 서두에서 뿌려진 생명의 씨는 생명의 수확으로 완성되며, 죽음의 씨는 죽음의 수확으로 완성된다. 생명과 죽음의 씨는 성경 전체에 걸쳐 자라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둘 다를 추적할 수 있다.

창세기 2 장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포함하는 삼각관계가 있다. 이 장에서 사람은 두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직면한다. 로마서 5 장부터 8 장까지에서 이 삼각관계는 계속된다. 결국 이 삼각관계는 이중(二重) 완결로 귀결될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은 죽음과 함께 불 못으로 쏠려 들어갈 것이고, 긍정적인 것들은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생수의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최종 완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곧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지 않는 이들은 불 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체험에서 한 발은 생명의 노선에, 다른 한 발은 죽음의 노선에 두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 사이를 오간다. 어제 여러분은 죽음의 노선에 있었지만, 오늘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의 노선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그것은 윤리에

속한 문제도 아니다. 윤리적인 표준에 따르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생명이나 죽음이나의 문제이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 내는 것이지만, 죽음 안에 있는 것은 사탄을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터이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생각을 자아에 둬으로써 영에서 끊어진다 사탄이 입지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머물고 생각을 영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내주하시는 영으로 옛 인격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도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영 안에 머무는 습관을 양성하자. 이런 습관을 더 많이 양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 있게 될 것이며, 더욱더 죽음에서 멀어질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8, 239-241, 249-25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3, 38; 3 권, 메시지 50

6/17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계 2:4-5, 7

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10-11, 23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계 22:1-2, 5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이 세 가지 항목,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 간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39-1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으뜸이 되셔야 한다는 것(1:18 하)을 말해 준다. 그리스도는 으뜸이 되셔야 하고 첫째이셔야 한다. ...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으뜸이신가? 으뜸이시자 가장 좋은 분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겨야 할 첫 번째 항목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었고, 교회의 타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사실상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지 않음으로 그분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옷 입는 방식과 머리 모양을 내는 방식에서 으뜸이 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시도록 해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 때때로 나는 옷을 입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당신은 이 와이셔츠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신발이 마음에 드십니까?”라고

여쭙어 본다. 이러한 대화는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과 매우 친밀한 대화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큰일에서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 하며, 등잔대로서 신성한 빛을 비추어 내야 한다(계 2:5 하). 사랑은 생명과 관련되고, 생명은 빛과 관련된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일종의 삼일성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시도록 해 드린다면 우리는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제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지방에서 빛나는 등잔대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것이다(계 12:17 하).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거가 될 것이다. ...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야 한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는 알파벳 ‘엘(L)’로 시작하는 네 가지 단어인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를 기억해야 한다. ‘엘’로 시작하는 이 네 단어 중 첫 번째는 사랑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방면과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러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즉시 생명의 빛이 된다(요 8:12).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빛날 것이고 단체적으로 등잔대로서 빛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은 등잔대를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서 그리고 단체적으로는 교회에게서 옮기실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그분을 누리도록 회개하고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그들에게서 옮겨질 것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둠함이 보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이기는 자들, 2 장, 38-39, 41-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이기는 자들, 2-3 장

6/18 수요일

아침의 누림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8:10-11, 38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 14:21, 23

21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몸은 우리의 가장 바깥 부분이며, 이 둘 사이에 우리 존재의 주된 부분인 혼이 위치한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식나무인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이 두 나무는 이전에는 사람 밖에 곧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즉 하나는

우리의 육체 안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로마서 7 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그저 죄만 거한다고 말한 것을 볼 것이다. 죄는 사실상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로마서 8 장 16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인데, 이 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에덴동산의 축소판이다. 우리 혼의 한 부분인 생각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사탄을 대표하며,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은 하나님을 대표하신다. 에덴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 편은 우리 안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203-20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내적 존재를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순수하고 정결하며 선한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와 사람에게 무언가를 먹게 하여 그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했다. 사람이 먹은 것은 지식나무였고, 그 결과 그 나무의 실재가 실지로 사람의 물질적인 몸 안으로 들어왔다. ... 사람의 몸은 본래 순수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했을 때, 사람의 몸에 또 다른 요소 곧 이질적인 요소가 더해져 육체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육체에는 두 요소,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요소와 사탄 자신인 또 다른 요소가 있다. ... 이로써 우리는 이질적이며 생소한 어떤 것,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왔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의 종교와 문화 안에 있는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결코 이 점을 논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가르침들 안에 사람의 육체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오염되고 변질된 몸이 육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로마서 6 장 6 절은 오늘날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의 몸이 아니다. 7 장 24 절은 우리의 몸이 '이 죽음의 몸'이라고 말한다. ... 죄는 남편이고, 죽음은 아내이다. 그들은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 분명 죄는 죽음을 사랑하고 죽음은 언제나 죄에게 복종한다. ... 우리의 몸은 죄와 죽음의 몸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야 한다(고전 9:27). 우리의 몸이 육체인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의 내적 존재 바로 곁에 죄와 죽음의 몸이라는 추한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은 ... 모두 육체 안에 함께 있다. ...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시간을 들여 집회 장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한다. 사탄 또한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있다. 사탄의 집회 장소는 우리의 육체이다. ... 사탄은 죄와 죽음과 더불어 항상 육체 안에 있다.

이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다. 육체와 사탄과 죄와 죽음은 하나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거나 선행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빛 비춤을 받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추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육체를 유죄판결 해야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속임당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후로는 그들의 육체가 원래상태로 되돌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육체를 되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육체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육체에 관하여 어떤 긍정적인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1 권, 육체와 영, 1 장, 232-234, 238-2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1 권, 육체와 영, 1-3 장

6/19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3:6

6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속 4:6

6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롬 8:3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요 3:14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히 2:14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고,

육체는 우리를 도와 영으로 돌리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는 또한 영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미워하지만,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돕는 육체’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 내 육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날 이후로 나는 두려워하고 떨었으며,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을 앙망하고 영으로 돌이켰다. 나는 깨어 경계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저를 당신의 돌보심 안에 지켜 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영의 영역 안에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신다면 저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육체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에서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육체에 소망이 없다는 것과

육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육체는 여기에서 우리를 돕고 있으며,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키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며 더 이상 육체를 조금도 신뢰할 수 없게 한다(빌 3:3). (위트니스리 전집, 1975-1976 년, 1 권, 육체와 영, 1 장, 2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처리하셨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육체가 끝났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지혜로 말미암아 육체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남아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좋아하지 않든, 육체는 우리를 도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한다. ...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나 실패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는 육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으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얻는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1 권, 육체와 영, 3 장, 265 쪽)

우리 모두는 반드시 왕으로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원수를 다스리려고 부지런히 애쓰더라도,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한, 그분은 여러분 안으로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일해 넣으시기 위해 여러분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것이다. ...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며, 필사적으로 영 안에 들어가게 한다. 결국 이렇게 필사적으로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주님으로 적셔지게 될 것이다.

죄로 가득하고 추악한 육체가 주는 이러한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에서나 그분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주시는 것에서 그다지 필사적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 종종 그분은 우리의 상태가 가련할 때,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가지신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뛰어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내적인 일에 대해 단혀 있을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련한 상황이나 낮은 상태에 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상태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가 좋을 때보다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더 많이 일해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 더 열리고, 더 기꺼이 주님께 돌이키며,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도록 더 기꺼이 허락해 드리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우리 육체 안에서 계속 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육체를 혐오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최악된 혼합물까지도 주님을 얻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영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여 그 영을 더 얻게 된다. 이것은 승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 영을 얻는 문제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0, 59-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 1-4 장,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9

6/20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8

18 그러므로 한 범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고후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5:27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로마서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신성한 전이와 한번의 영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이는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이고 위치적인 것이다(롬 6:3-8). 두 번째 전이는 육체에서 나와 생명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7:1-6, 8:16 상). 육체는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아담이다. 우리는 육체에서 나와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이신 그 영 안으로 전이되었다. 그 영과의 연결을 실행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연합된 영에 두는 것이며(8:6),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4 절). ... 생각을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한 결과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5:17 하, 21).(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장, 19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 곧 사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과 요소에서 죄인으로 조성되었다. 우리는 또한 죽음을 물려받았는데, 이 죽음은 한 면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관하여 수동적이고 약하고 무능하게 했으며, 다른 한 면으로는 먼저 우리의 영에서, 그 다음 우리의 혼을 거쳐, 결국은 우리의 몸까지 왕 노릇을 했다. 더 나아가 죄와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유죄판결 아래 있게 되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또한 그분의 죽음 곧 우리를 아담에서 구출해주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거듭났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렇게 다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전 1:30).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의롭게 여기신다.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로마서 5 장 18 절에 따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의 목표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은 우리가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하는 정도까지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의를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린다. ...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는 어떠한 영광이며 원수에게는 어떠한 수치인가!

오늘날 그 영은 적용되시기 위한 그리스도, 곧 우리의 체험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실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영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신성한 전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너 어디 있느냐?”(창 3:9)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 ...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빌 3:9).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연결되어 그 영 안에서 발견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과 하나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포함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하셨다.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고(고전 6:17) 그분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롬 8:16), 이것은 우리가 한 영으로서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신성한 전이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장, 190-1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장

6/21 토요일

아침의 누림

롬 5:21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롬 5:15-16, 18-20

15 그러나 이 은혜로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 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6 또한 거저 주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많은 범죄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의롭게 됩니다.

18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들로 조성될 것입니다.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로마서 8 장 5 절과 6 절은 에덴동산의 축소판을 보여 준다. 이 축소판에서 한 쪽에는 육체와 죽음이 있고, 다른 쪽에는 영과 생명이 있으며, 그 중간에는 생각이 있다.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있는가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한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외적 행동과 내적 존재 사이에 불일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담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장, 19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진다(롬 8:4).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옛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보고 우리의 노력을 버리고 단지 영 안에 머문다면, 또 다른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실 것이다. 그 영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행동하신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롬 5:17 하, 21). 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를 준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주님, 당신은 은혜이신 당신 자신을 제게서 보류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롭게 됨이라는 입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리스도는 선물로서 제 의가 되었고 저는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누릴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은혜로 제게 주십시오.” 은혜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 없지만 삼일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분 곧 은혜이신 완결되신 영은 그러한 존재가 되실 수 있다.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으며,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결정 연구, 2 장, 192-193 쪽)

1943 년 5 월에 나는 ...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렸다. ... 이 년 반을 병중에 지내면서 나는 생명나무를 보았다. ... 온갖 종류의 어려움은 생명의 걸림에서 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극도로 누우치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많은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분께 다루심을 받았다. ... 당시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난징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이들을 해방했다. ... 그들은 사 년 전에 상하이 교회의 소요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 주님께 감사드린다.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상하이 교회가 치료를 받았다. ...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상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초를 놓아 주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1 년, 2 권,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 8 장, 170, 174, 176, 180 쪽)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관념을 철저히 전환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실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제하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사십 세에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십여 년 동안 들인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이 소모된 것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 많은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그때 읽었던 영적 서적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 나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정중하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과거의 여러분의 추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념이 반드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통제하는 이상을 가져야 한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 장, 91-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1 년, 2 권,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권, 메시지 38*

6/22 주일

아침의 누림

창 2:8, 16-17

8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16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계 22:12-14, 16-17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걸음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샅별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